



[요약] 공동부유와 호구

1. 과도한 도농간 격차

- 공동부유에서 강조하는 주안점은 도농간 소득격차의 해소. 명목GDP에서 도농간 소비지출의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3.61배까지 확대.
- 공동부유는 이와 같은 도농간 소득과 지출격차를 이전소득 및 최저임금 확대를 통하여 보전하면서民間의 구매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목적.

2. 실제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농민공

- 호구제도는 호적과 사회보장제도가 결합된 형태로써 신분제의 성격. 2020년 기준 중국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기준 총 14.118억명의 인구 중 2.61억명이 농민공으로 집계.
- 공동부유는 각종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민공의 처우개선 측면에서의 강조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호구제도의 개선 혹은 적어도 이들 계층에 대한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3. 농민공신분 탈출로 인한 소비지출 변화

- 농민공의 소득보전에 대한 기대효과는 결국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구성의 변화. 공동부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지출 증가는 의료와 주거.
- 의료와 주거는 농민공이 사회보장 측면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동 품목의 소비 자체를 못하다가 호구의 전환으로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 자세한 내용은 10월 7일자 “공동부유와 호구” 자료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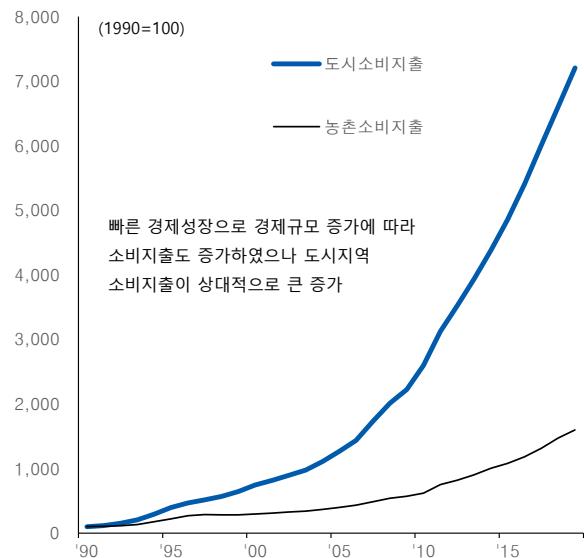
1. 과도한 도농간 격차

공동부유 정책에서 강조하는 주안점은 도농간 소득격차의 해소이다. 200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경제규모의 총량은 확대되었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성장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소득분배의 악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저소득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분배에서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중국의 명목GDP에서 도농간 소비지출의 규모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 대비 도시의 소비지출금액은 1.36배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그 격차는 빠르게 확대되었고, 2000년대에는 2.52배, 2010년대에는 3.52배까지 그 격차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기준으로 도농간 소비GDP의 격차는 3.61배까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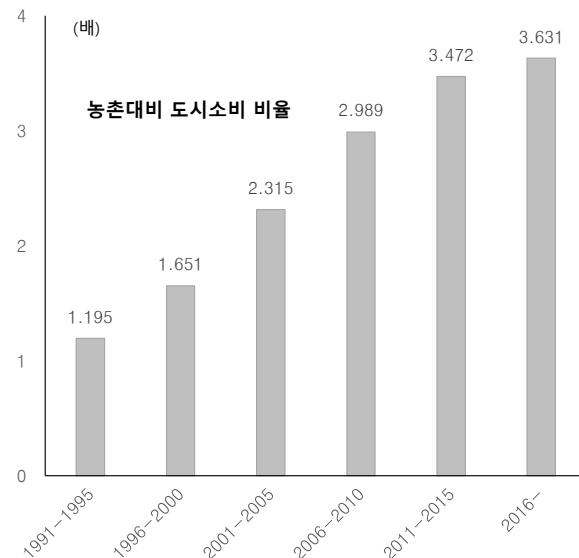
공동부유는 이와 같은 도농간 소득과 지출격차를 이전소득 및 최저임금 확대를 통하여 보전하면서 민간의 구매력을 확대시켜주는 대신 기업 입장에서의 부담은 조금씩 확대되는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챠트1] 도농간 소비지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불균형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챠트2] 2019년 기준 도농간 소비 GDP의 규모는 3.6배까지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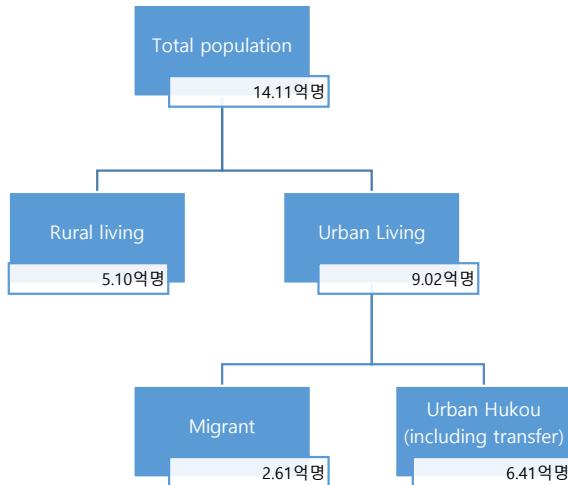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실제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농민공

공동부유를 통하여 추진하는 장기적인 소득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구제도이다. 호구제도는 호적과 사회보장제도가 결합된 형태로써 신분제의 성격을 가지는데, 특히 농민공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계층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기준 총 14.118억 명의 인구 중 2.61억명이 농민공으로 집계된다. 농민공이란 농촌호구를 보유하면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계층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소득수준 및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열악하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공동부유는 이와 같은 호구제에서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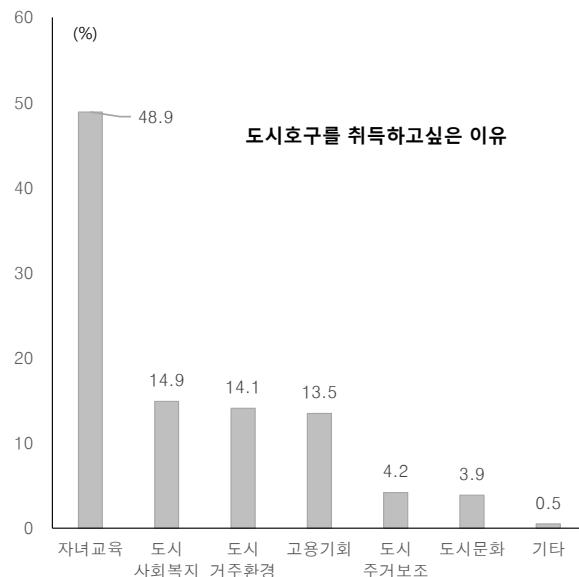
현재 중국의 호구제도상 구분될 수 있는 집단은 순수 도시호구, 순수 농촌호구, 농촌호구를 가졌으나 도시호구로 전환, 농촌호구 보유중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의 총 네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환호구의 경우 기존 농촌호구를 보유하였으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도시호구를 취득한 계층을 의미한다. 결국 공동부유는 이와 같은 호구제도의 개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부유 이슈는 신분계층으로도 볼 수 있는 호구제도의 개선 혹은 적어도 이들 계층에 대한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챠트3] 중국 인구구조상 전체 14억명의 인구 중 농민공은 2.61억명 수준.



자료: 중국 통계청,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챠트4] 도시호구를 취득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과 도시복지정책을 원하기 때문.



자료: Floating Population Dynamic Monitoring Survey,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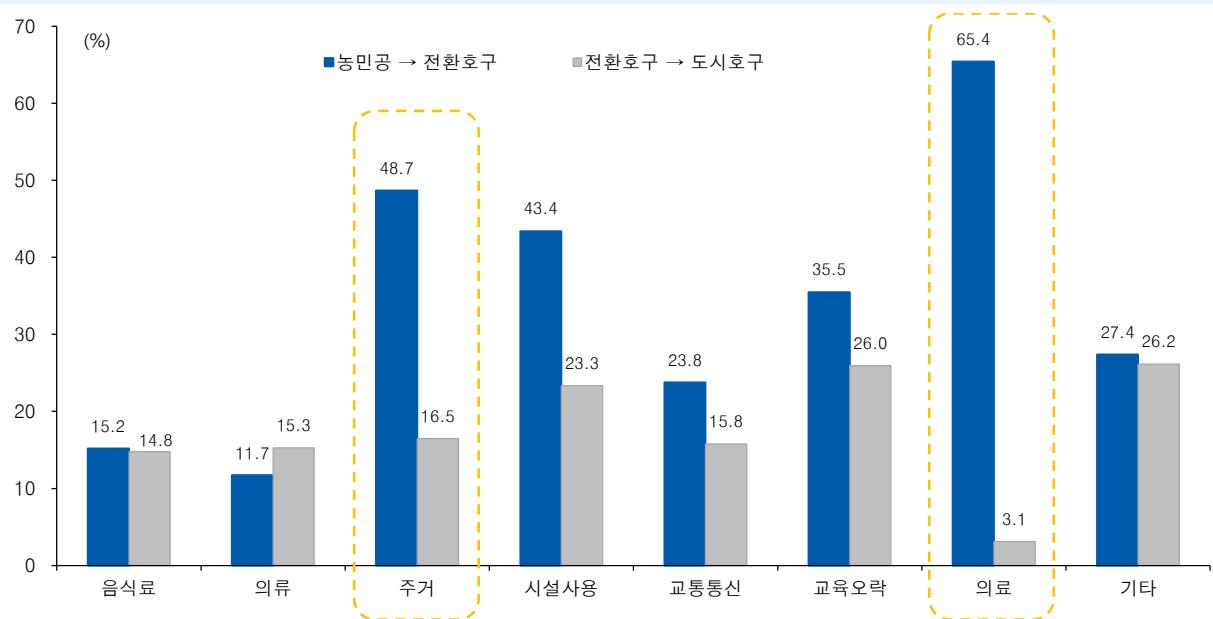
3. 농민공 탈출로 인한 소비지출 변화

본고에서 공동부유의 직접적인 효과로 언급된 농민공의 소득보전 및 호구제도 전환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열악한 계층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구성의 변화이다. 현재 품목별 호구별 총지출대비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도시호구 대비 농민공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은 음식료, 교통통신, 의류 등이 있고, 주거, 교육오락 등의 품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지출 패턴에 있어서 필수재 성격의 지출에 우선되는 패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부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는 것은 농민공의 소득과 소비패턴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의미로써, CHIP database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농민공이 전환호구로 이행되는 경우 의료서비스와 주거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의료와 주거는 농민공이 사회보장 측면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동 품목의 소비 자체를 못하다가 호구의 전환으로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자세한 내용은 10월 7일자 “[공동부유와 호구](#)” 자료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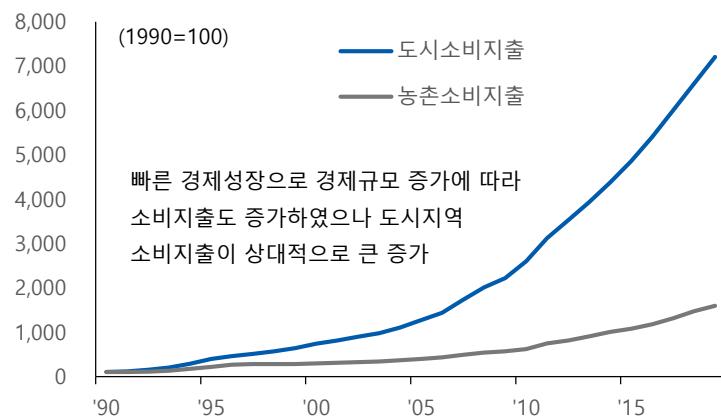
[차트5] 공동부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농민공의 사회보장 확대가 달성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지출 구조 변화는 주로 의료와 주거.



자료: CHIP data를 활용하여 필자 직접 계산,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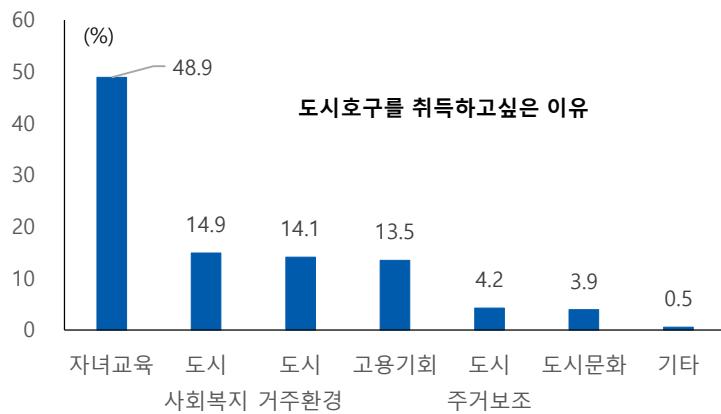
Key Chart

도농간 소비지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불균형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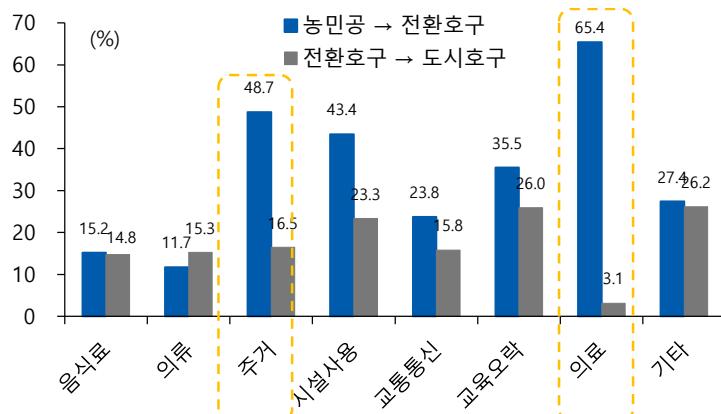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도시호구를 취득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과 도시복지 정책을 원하기 때문.



자료: Floating Population Dynamic Monitoring Survey,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공동부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농민공의 사회보장 확대가 달성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지출 구조 변화는 주로 의료와 주거.



자료: CHIP data 를 활용하여 필자 직접 계산,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